

심의결정에 참여한 윤리위원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

윤리위원

임종건 (독자불만처리위원·전 서울경제 부회장)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김기웅 (한국경제 사장)

심상복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장)

이선민 (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

윤영미 (한겨레 전략사업국장)

황인혁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모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문화일보 광고국장)

변재운 (쿠키뉴스 대표)

우희정 (수필가)